

『영미연구』

제50집 (2020): 77-104

<http://doi.org/10.25093/jbas.2020.50.77>

엘리자베스 보웬의 도덕적 파산자들:

「상속을 박탈당한 자」*

진 명 희

단독 / 한국교통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보웬의 단편 「상속을 박탈당한 자」에 대한 꼼꼼한 읽기를 시도한다. 단편소설로서는 다양한 인물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이 작품에서 보웬은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 경제대공황이라는 정신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의 시기를 겪으며 존재의 무익함 속에 도덕성이 타락하고 정체성이 와해되는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의 섬뜩한 생존의 비전을 보여준다. 「상속을 박탈당한 자」는 궁핍한 특권층계급의 게으르고 부도덕한 젊은 남녀의 기생적 삶의 모습과, 경제력의 변화로 신분 상승 중인 중산층의 소심하고 수줍은 여성의 하룻밤 일탈경험,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신분을 바꾼 하층계급의 한 남성이 반복해서 썼다 불태우는 편지의 혼란스런 고백 서사를 통해, 타락한 현재 삶의 모습을 상호 병치시켜 묘사한다. 등장인물들이 표출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 도덕적 병폐와 마비된 열정과 무력감은 인물의 내면심리를 반영하는 장소나 분위기의 수사적 비유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 특히 보웬은 독특한 하층계급 인물의 기이한 이야기를 끼워 넣는 서사전략을 통해 단편소설에서 다성적 서사의 가능성을 확장하면서도 단편소설 장르 특유의 단일한 효과로 수렴하는 데 성공한다. 이로써 보웬은 「상속을 박탈당한 자」에서 「새로운 시적 실재성」을 구현하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며 인간존엄에 대한 ‘심미적이며 도덕적인 진실’에 천착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규명한다.

주제어: 엘리자베스 보웬, 「상속을 박탈당한 자」, 혼란, 박탈, 도덕적 파산

I. 들어가며

엘리자베스 보웬(Elizabeth Bowen, 1899-1973)은 더블린에서 출생한 영국계 아일랜드 작가로, 평생 9편의 장편소설과 90편이 넘는 단편소설, 서평, 에세이, 회고록, 라디오 대담 등 다양한 종류의 산문을 썼다. 그녀가 일곱 살 되던 해 더블린에서 변호사를 하던 부친은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요양을 받게 되며, 그 후 모친과 지내던 보웬은 13세에 모친을 여의게 된다. 외가 쪽 친척이 있는 영국에서 기숙학교를 마친 보웬은 1923년에 앨런 캐머론(Alan Cameron)과 결혼 후 런던의 고급주택 리전트 테라스(Regent's Terrace)에 살며,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스티븐 스펠더(Stephen Spender), 시릴 코놀리(Cyril Connolly) 등 당대 영국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그녀는 화려한 저택에서 값비싼 의상과 훌륭한 음식과 외국여행을 즐기며 영국 상류층 삶을 보여주었다. 블룸즈버리 그룹에 속하지 못했던 보웬에 대해 울프는 “아주 고귀한 말상의 얼굴과 상류계급의 매우 경직된 정신”을 가졌다고 혹평한 바 있다(Jordan 6 재인용). 그러나 보웬에 대한 평가는 사후 91편의 단편들을 모은 『엘리자베스 보웬 단편집』(*The Collected Stories of Elizabeth Bowen*)이 출간된 후에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단편집』 서문을 쓴 앵거스 윌슨(Angus Wilson)은 보웬이 “탄탄한 지성”을 지닌 상류층 여성으로서, “보다 위대한 천재”인 울프와는 달리 “학계의 훌륭한 노예”가 되지 않았던 덕분에 “절망스런 제약” 없이, “열정과 사랑”으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였음을 높이 평가한다(8).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으로 당대 모더니즘 사조의 중심에 있던 울프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웬은 울프의 “통찰력과 감수성”을 많

은 부분 공유하지만 보웬이 훨씬 예리하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격찬도 있다 (Glendinning xv). 전기작가 빅토리아 그랜디닝이 보웬의 최상의 단편소설 6편 중 하나로 꼽는 「상속을 박탈당한 자」 (“The Disinherited”)는 원래 단편집 『고양이가 점프하다』 (*The Cat Jumps*)(1934)에 실린 작품 중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이다 (Glendinning 115). 보웬이 제목을 ‘견고한 판타지’(Hard Fantasy)로 제안한 이 단편집은 “삶으로부터 도피”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모았다고 작가 스스로 밝혔다 (Glendinning 114). 또한 허마이오니 리(Hermione Lee)는 보웬이 “흔든스럽고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경험에 정교하게 형식적인 방식”을 적용하며 “혼란과 불안과 배반을 분석함에 있어 현대작가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하며, 대표단편 9편 중 「상속을 박탈당한 자」를 “1930년대의 마비된 중산층”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11-12). 보웬의 단편 연구서를 발간한 필리스 레스너(Phyllis Lassner)는 작가가 주장한 단편소설 기법과 서사방식을 모두 갖춘 세 편의 단편 중 하나로 이 작품을 평가한다(97). 또한 모더니즘의 기법 면에서 볼 때 인물들의 혼란스런 과편화된 자이에 대한 복잡한 명상을 그 자체로 과편화된 텍스트를 통해 공포와 맞닥뜨리는 방식을 구사함으로써, 이 단편이 헨리 제임스(Henry James)와 메이 싱클레어(May Sinclair)의 고스트스토리를 상기시킨다는 관찰도 있다(Thurston 20). 이와 같은 평가는 보웬이 이 작품을 통해 “한편의 단편이 자체적으로 생명을 갖도록 한 최초의 작가가 될 것이다”라는 유도라 웰티(Eudora Welty)의 상찬에서 절정을 이룬다(22). 보웬 자신도 이미 1949년 『대낮의 열기』 (*The Heat of The Day*) 북 리뷰 관련 설문지에서 「상속을 박탈당한 자」를 「여름밤」 (“Summer Night”), 「행복한 가을들판」 (“The Happy Autumn Fields”)과 함께 예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만족스런 세 작품 중 하나로 꼽은 적이 있다(Miss Bowen 33).

보웬은 이 단편에서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도덕적이며 정신적으로 부패한 특권층 젊은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표면적으로는 두 귀족층 남녀의 나태하고 기생적 삶의 모습을 그려나간다. 그들은 도덕성이 해체되어 사회적으로 무익하며 경제적으로 절망스런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

과 어울리게 된 순진한 듯 특별히 주관이 없는 중산층 부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된 밤 모임에서 자신의 내면에 잠재한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결가지 서사로 하층계급의 운전기사가 들려주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보웬 특유의 섬뜩하고 괴기한 공포를 자아내며,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자멸적 부패 현상을 적나라하고 강하게 드러낸다. 그는 밤에 마치 꿈을 꾸듯이 써내려가는 환각의 판타지 같은 서사를 통해, 돈으로 자신을 산 여성에게 상처받아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살해했음을 고백한다. 곧이어 회사 출장차 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의 신분을 도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까지 스스로 박탈한다. 서사 중간에 불쭙 등장하는 이 운전기사의 고백은 그 내용에서 뿐 아니라 “다른 담론 형태사이의 충돌”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충격효과가 크다(Stewart 147).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보웬은 주된 내러티브에 서간체 형식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이중목소리 담론을 형성하며 대표적 영국계 아일랜드 모더니스트 작가로서 정통 모더니즘과는 또 다른 “천부적인 예술능력”을 보여준다(Wilson 7).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단편 「상속을 박탈당한 자」에서 형상화한 서로 다른 세 계층의 등장인물들의 타락한 현재 삶의 양상, 즉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대적 절망, 공포, 잔인성을 상호 병치시켜 추적한다. 이 단편에서 제목이 말하는 ‘상속을 박탈당한 자들’이란 단지 물질적인 재산 상속권을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정신적 부패와 도덕성의 해체로 ‘삶이 뿌리 뽑힌 자들’(the uprooted)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보웬은 이제는 판타지가 되어버린 과거의 특권적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인물들이 드러내는 사회적, 도덕적 부패와 마비된 열정과 무력함을, 제3의 인물의 섬뜩하고 괴기한 행태와 병행하는 서사전략으로 들추어낸다. 언뜻 뜬금없이 끼어든 듯한 프로세로(Prothero)라는 인물은 단순히 “단편의 정교함을 희석시키는 로렌스 아류의 판타지”에 머물지는 않는다(Glendingning 115). 「상속을 박탈당한 자」는 보웬이 소설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롯, 인물, 장면의 세 가지 요소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Notes”). 보웬은 단편소설치고는 다양하고 “자석 같은”(magnetic) 인물을 등장시키며(“Notes” 253), 계절과 장소의 배경묘사에도 많은 공을 들인다. 보웬이 주장하듯이

단편소설이란 “하나의 실험”으로 “중심적인 단일한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 작품에서 변화하는 시공간적 상황은 주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실험’으로서 「상속을 박탈당한 자」가 단순히 잘 짜인 서사 기록을 넘어 시적 “서정성 혹은 열정”을 확보함으로써 단편소설 장르의 본질인 ‘단일한 효과’를 구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Stories” 127-8).

II. 정체성 박탈과 도덕적 부패의 서사

「상속을 박탈당한 자」는 시공간적 환경의 묘사, 그리고 다양한 메타포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야기는 계절 변화에 대한 화자의 관찰로 시작한다. 가을이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되어 아름답게 타오르다가 11월에 접어들어 섬약한 병적 상태의 기운을 보이며 쇠퇴해간다. “어떤 연인은 ‘죽음’에 대한 명상에 잠길지도 모를” 늦가을의 황량함은 그림처럼 생생하다(375). 이어서 가을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낙엽들, 잔뜩 낀 안개, 남쪽으로 날아가는 여름철새,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지막까지 매달려 있는 나뭇잎들이 클로즈업 된다. 작가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쇠락하고 소멸해가는 늦가을의 자연을, 앞으로 전개할 인간 삶의 양상에 대한 전조로 그려 보인다. 이는 보웬의 단편소설의 특징으로 알려진 “정확한 분위기 묘사”의 훌륭한 일례가 된다(Lee 129).

그 후 비가 내렸으며, 며칠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단조로운 날들이 이어졌고, 퇴색한 짙은 낙엽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가을 중순은 온화하고 움직임 없이 감각도 없이 시작되었다. 나날은 분명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 안개가 하루 종일 정원을 거미줄처럼 에워쌌고, 햇빛은 서서히 그 사이로 비스듬하게 들어와 갈색 배나무들과 연노랑 까치밥나무 잎사귀들과 여기저기 피어있는 금잔화와 흠뻑 젖은 장미에 닿았다. 바람이 없었으며, 숲은 아주 긴장했다. 생기 없는 11월 밤에는 그 어둠을 배경으로 참나무들은 여전히 노란색으로 무서운 빛을 발

산하였다. 모든 것이 서서히 썩어갔다. 비로 불어난 어두운 강들은 뿌옇게 표백된 사초식물들 사이로 물결에 낙엽들을 신고서 빠르게 흘렀다. 비가 내린 후 빛이 없는 회색 하늘이 땅을 둘러쌌으며, 물웅덩이들은 풀밭 사이를 누비고 빠져나가서 연약한 갈대들 안에 생기 없이 고여 있다. 가끔씩 하늘은 아주 높은 곳에서 들리는 빠른 바스락거리는 신음소리로 방해받는데, 여름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소리였다. 찢어진 조각의 마지막 남은 나뭇잎들이 마치 자기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있었다. 영원불멸이 늦가을에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11월에 들어 언젠가부터, 밤마다 바람이 갑자기 일었다. (375 필자 강조)

겨울을 향해가는 늦가을의 자연 현상을 관조하다가 ‘서서히 썩어가는 모든 것’으로 생각이 이어지는 화자의 관찰이 예사롭지 않다. “분위기와 기후를 심리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타고난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보웬은 반복되는 ‘안개’와 냄새, 부패 등과 관련된 이미지 묘사를 통해 도덕적 타락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킨다(Medoff 74). 계절변화에 따라 조락하는 자연에 대한 관찰에 이어 시대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묘사가 뒤따른다. 이 지역에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옛 마을과 신흥주택단지의 주거 환경과 풍토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화자의 비판적 태도에 관한 한 신흥주택단지 또한 옛 마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평지에 강을 끼고 느릅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케케묵은 아늑한 옛 마을의 헛간지붕은 누렇게 이끼가 끼었고 교회침탑의 풍향계는 때로 금빛을 쏘아내며, 일요일마다 육중한 교회 종소리가 언덕위로 울려 퍼진다. 평범한 이 옛 마을에는 언덕자락을 빙 돌며 신흥주택지와 이곳을 차단시키는 흰색도로 경계석이 있는 우회로가 나 있고, 런던행 특급열차가 덜거덜거리며 달리는 철교가 놓여있으며, 주유소가 있고, 백조가 놀고 있는 강이 흐른다. 반면에 깨끗한 공기의 고지대에 세워져 멀리서 대학도시를 내려다보는 신흥주택지는, 닭을 기르지 않고 허술한 차고도 짓지 않고 밖에 옷도 말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구매 가능한 특권층의 고가의 단지이다. 그러나 전통적 중간계급의 풍습을 따르고 위생과 외양에만 신경을 쓸 뿐, 과거 영국 지방귀족들의 대저택이 주는 거대한 호젓함을 지니지도 못한다. ‘목초지’나 ‘잔디밭’이 아니라 ‘뻗뻗한 풀밭’에 세워졌으며, ‘수술용 메스’로 절단된 듯이 산꼭대기 콘크리트 급수탑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버스도 오지 않고 상점도 없는 신흥주택단지에는 특별한 젊음이나 활기도 보이지 않는다. 신흥주택단지가 지닌 현대적 특성을 위해 ‘수술용 메스’라는 메타포의 사용은 “모더니티의 메마른 합리성”뿐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 전통의 부재와 소외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Thurston 23). 옛 마을에 거주하는 귀족특권층의 뿌리 뽑히고 혼란스런 상황에 맞서 조심스럽게 세워진 현상이지만 적절한 경쟁이 되지 못하는(Lee 133), 호화로운 주택단지에 대한 이런 묘사를 통해 보웬은 1930년대 새로이 대두하는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부각한다.

옛 마을과 신흥주택단지의 대비처럼 이곳에 거주하는 다비나 아치워스(Davina Archworth)와 메리앤 하비(Marianne Harvey)의 삶도 대조를 보인다. 멋진 분위기에 쉽게 빠져들어 결혼 12년 만에 이곳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 온 메리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라 가을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이와 달리 구질서를 배경으로 살아온 다비나는 가을의 ‘떡이’가 되어 하루 종일 쌓여있는 젖은 낙엽을 발로 차거나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우울하고 무의미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거린다. 자연의 부패와 거의 일체화 상태에 있는, 마치 구시대 문화로부터 내려온 게으른 유물과 같이 “천성적으로 귀족인” 다비나는 젊은 여성치고 확고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지녔으며, 태생적으로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여성이다(376). 집근처 작은 가게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다비나는 신흥주택지에 상점이 없다는 점이 불만이며, 전화로 쇼핑하여 현실과 접촉을 단절하는 메리앤의 습관을 경멸한다. 이 새로운 주택이 “세련됨이 없이 위생적이며 지적인 분위기”만 보여주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지만(376-7), 다비나는 한가한데다가 메리앤에 끌리고 가까이 살기 때문에 “우스운 동맹”을 맺었다(377). 다비나의 귀족적인 기준에 따르면 메리앤은 신분상승 중인 중산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전통적인 영국 귀족의 삶의 고풍스런 우아함을 결여한 채 따분하고 끔찍한 삶을 사는 여성이다.

사치하는 습관과 연애로 스스로를 망쳐 재산이 전혀 없는 다비나는 29세로 이 옛 마을에 있는 돌아가신 숙부의 영지에 숙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이런 상태를 일

시적인 거주라고 생각하지만 삶이 더 나아질 전망은 거의 없다. 그저 조바심만 내며 고통스럽게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무한정 기다리는 다비나에게 “일어났어야만 하는 어떤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나날이 더욱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377). 그녀는 지루한 일상에 갇힌 인물로, 매일같이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날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쓸모없는 열정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사실상 다비나는 기질뿐 아니라 외모로도 우울하고 성급한 죽은 숙부를 닮았다. 숙부는 “우아하고 실의에 빠진 제스처”로 안주했으며, 결혼생활 내내 부인이 기분을 맞춰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는 겨우 미소나 지어줄 뿐이었다(377). 큰 키에 고개를 두드러지게 똑바로 세우고 탄력 있는 짧은 검은색 머리카락은 귀 뒤로 단정하게 넘긴 다비나는 숙부처럼 “침울하고 낭만적인 기운”을 지녔다. 가난한 친척임에도 다비나의 “당당하고 위엄 있는 귀족다운 습관”에 아치워스 부인(Mrs. Archworch)의 하녀들은 감탄한다. 화자는 “만약 그녀가 지위와 생활공간과 마음의 안정이 있었다면, 관대하고 활동적이고, 심지어 고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감정은 그녀의 삶에서 단지 작은 역할을 해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타고난 여자였다”라고 말함으로써(377), 그녀가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현재 숙모에게 의지해 사는 삶에 대한 치욕과 답답함을 내면에 간직한 채 특별히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다비나는 마치 틱 장애처럼 손가락을 부딪쳐 딱딱 소리 내며 출구를 찾듯 들관을 확보하는 데 불만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귀족 특권의 신화에 기반 한 강한 자부심과 확고한 결단력,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를 지니고 태어난 다비나는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켰으며, 약화된 자아감은 그녀를 고립시켰고, 좌절된 계획들은 그녀의 관점을 어둡게 하였다. 그녀는 온화한 대학도시에서는 스스로 고립을 원하는, 경제력이 없는 ‘이방인’이다. 자욱한 담배연기에 싸인 실내에서 범죄소설을 읽고 시끄럽게 라디오를 들으며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생활을 한다. 이는 공허한 세계에서 목적 없는 무력감에 빠져 나태하고 부패한 특권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현재 다비나가 살고 있는 아치워스 귀부인의 저택은 어둡고 활기 없는 창문들이 있는 외관은 높고 좁아, “귀신이야기의 권두 삽화”처럼 보인다. 내부는 숨이 막힐듯하여

다비나는 이곳에게 사는 것을 즐길 수 없다. 그러나 신흥주택지에 있는 메리앤의 집 또한 다비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곳이다. 집에 자부심을 갖는 메리앤과 달리 다비나는 “교묘하게 희미하고 횡행그렁한” 하비 부부의 거실은 “지적인 고상한 취미에 대한 수치”를 보일 뿐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인다(378). 난로는 비어 있으며 스팀열기가 김을 뿜어내서 다비나가 느끼기에는 공기의 생명력을 빼앗고 고갈시킨다. 시계는 똑딱이지만 방에는 아무런 진동이 없다. 아치워스 부인의 저택이 귀신이야기에 나오는 음울함과 숨이 막힐 듯 답답한 내면의 인상을 갖고 있다면, 메리앤의 현대식 주택 또한 예술성을 결여하고 생명력 없이 건조한 느낌을 주며 삶의 맥박이 뛰지 않는 곳이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집에 대한 묘사는 전형적으로 “주요 인물들의 신분 상태와 성격의 환유적 표현”이라는 지적처럼(D’hoker 270), 보웬은 두 여성인물들의 집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들의 황폐하고 생명력 없는 주관적 내면세계와 일상 삶의 특성을 암시한다.

메리앤의 남편 매튜 하비(Matthew Harvey)는 건강 악화로 은퇴한 전직 공무원이다. 그는 행복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이곳에 숙모가 남겨준 유산으로 새 집을 지었다. 그는 이곳 대학도시협회의 명예 간사이며 대학의 교수휴게실 회원으로 한 학기에 세 번은 홀에서 식사도 한다. 아들만 둘인 하비 부부는 형을 따라 작은 아들을 이제 막 사립초등기숙학교에 보낸 상태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일찍 식사하고 아트 클럽에서 베푸는 저녁 파티나 학회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며 둘의 시간을 갖는데, 메리앤에게 이곳의 삶은 흥미롭다. 이들 부부는 서로의 애정에 행복을 느끼며, 매튜는 아내의 “차분함과 온화하고 선한 정신과 가정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379). 부인보다 15살 연상으로 신중하고 박식하며 관대하나 지루한 경향이 있는 매튜는 부인의 “수줍은 여신”과 같은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녀의 생기 있는 금발과 불확실한 태도는 그녀를 여전히 어려 보이게 했는데, “열정적인 남자”가 아니라서 “생기”를 갈망하는 매튜는 부인의 이런 모습에 매혹되었다. 이곳에 돌아온 이래로 친구들이 흰머리가 늘어나며 스스로 낭패감에 무기력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청년기의 유령”과 함께 사는 매튜는 수줍어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부인의 변함없는 신선

함에 매달렸다(379). 구식의 노퍽재킷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회색 플란넬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도 생기를 얻고자 어린 부인에 매달리고 유명과 같은 청년시절에 집착하는 매튜는, 메리앤이 부부관계에서 품고 있을 내면의 공허감을 예측하게 한다.

한편, 남편을 닮은 조카 다비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치워스 부인은 격식을 차리고 매력 없는 나이 든 미망인이다. 비록 지금은 다른 재산은 없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마을의 후원자로 생각한다. 평생을 여기서 남편과 함께 즐겨 온 아치워스 부인은 신흥주택지가 들어서며 언덕이 갈라지는 것에 화가 나지만 세월이 변했음을 받아들이고 새로 온 사람들을 방문한다. 과거 귀족부인으로 삶을 여전히 살고자 하는 아치워스 부인의 신경을 거슬리는 존재는 새로 고용한 운전기사이다. 이전 운전기사가 죽어 4달 전에 온 프로세로는 “무서울 정도로 결점 없이 신중한” 운전기사로 투덜대지도, 하녀와 관계를 맺지도, 맥주를 요구하지도 않는 “최상의 인물”이다. 하지만 아치워스 부인은 그에게 웬지 모를 “성마른 불안”을 느낀다(380). 이는 인간 주체를 어두운 내면에 감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한결같고 움직임 없는” 표정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my) 요리사’라는 식으로 하녀들에 대한 귀족적 소유감을 갖고 있는 부인에게 그는 그저 ‘그(the) 운전기사일 따름이다. 상류층 부인에게 하인들이 보여주는 민첩성이 없이, 예의바르지만 “웃지 않고 말 수가 적은” 프로세로에 대해, 어떤 면에서 “죽음의 협력자”인 양 변화를 두려워하는 아치워스 부인은 모든 사람이 말하듯이 그가 특이한 점은 운전기사로서는 특이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불안을 합리화한다. 부인은 다비나와 프로세로의 갈등을 눈치 채고도 “겉먹은 현실도피주의자”처럼 모른 척한다(381). 그녀는 쇠락한 귀족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사실 이 쇠락한 귀부인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들어온 다비나의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쌍하고 평범하며 뚱뚱한 신경질적인 노인”일 뿐이다(404). 요즘 아무도 그녀에게 아첨하지 않는 처지의 귀족부인은 차가 고장 나서 썩거미 경(Lord Thingummy)의 손님이 되었다는 다비나의 거짓말에 대해, 남편 생전에 같이 만났던 썩거미 경과 다비나가 친해진 것을 기뻐하는 반응을 보인다. “애정과 대립하는 분노”의 감정으로 “이상하게 품위 있는 썩 미소”(404)를 띠고 자신이 죽은 후

이 저택이 다비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인은 전형적으로 몰락해가는 시골 귀족집안의 혼자 남은 안주인의 모습이다. 보웬은 여전히 과거 귀족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치워스 부인에 대한 소극적(farcical) 묘사뿐 아니라, 씩거리라는 이름(‘여윈’(thin) ‘잇몸을 다 드러내는 미소’(gummy))의 축어적 의미를 통해, 변화하는 혼란의 시대에 구태의연한 귀족계급을 희화화한다.

영지 끝자락에 있는 마부의 방에서 지내는 프로세로와 안면을 튼 지 2-3주 정도 된 다비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가치가 없는” 그녀의 부도덕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James 208). 다비나는 그가 어디선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사기꾼”으로, 현재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따라서 다비나는 신문에서 보았던 프로세로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를 협박하여 돈을 빌린다. 반면, 프로세로는 그 대가로 키스를 받으며 또한 그녀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아치워스 부인의 차를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의 기이한 관계를 알 리 없는 메리앤은 11월초 어느 날 밤 다비나가 하인인 프로세로에게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고 “범죄의 냄새”가 나는 지폐를 메리앤의 얼굴에 들이밀 때 순간 움츠리며 밤 모임에 동참한 것을 후회한다(382). 다비나는 메리앤이 특히 계급문제에 어색하고 모호한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지만, 키스로 대가를 치루는 프로세로가 아니라 매튜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메스꺼운 일이라고 여긴다. “다비나는 그 익명의 입술이 아무런 즐거움 없이 그녀의 입술을 요구할 때마다 혹은 그의 멍하니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 차가운 눈길에 그녀 얼굴에 닿을 때마다 스스로 해방됨을 느끼며, 이상한 방식으로 키스를 성급하게 팔아넘기며 자신의 자만심을 만족시킨 것은 사실이었다”는 화자의 설명처럼(406-7), 다비나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홉 살에 유대인 소녀와 있었던 경험으로 “기이한 것”을 경멸하며 ‘숙녀’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된 메리앤은 지금도 프로세로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정한다. 어린 시절 유대인 소녀에게 가졌던 것처럼 다비나의 모르는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며 그들을 “끔찍한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한다. 섬뜩한 상상력을 허용하

지 않는 전통적이고 제한적 규범 속에서 성장하고 집안의 천사와 같은 부인의 역할을 수행해 온 메리앤이 다비나의 기이한 행동을 보며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할 미지의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이날 밤공기는 “잔잔함이 없이 불안하다”(384). 구름만 급하게 떠갈 뿐 달은 보이지 않고, 어둔 바람 속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떨고 있는 썩어가는 꽃대들만이 묘사되며, 메리앤의 두려운 내면심리가 불안한 자연현상에 비유적으로 드러난다. 삶이란 아무 것도 남김없이 ‘탈주’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비나에게나 익숙하고 안전한 규범을 추구하는 메리앤에게나 모험과 변화를 찾으려는 한밤중 여행이 많은 고난을 부여한다. 이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교차로 가로변에 위치한 황량한 술집의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모험이 아마도 실패로 끝날 것임을 앞서 암시한다.

차를 몰아 그들이 들어간 약속장소인 바는 마치 “늑대의 눈알”같은 네온사인인 반짝이고 손님은 아무도 없이 “갑작스럽고 멧쩍은 공허의 기운”만 감돈다. 사람은 없고 “끔찍한 빛”을 발산하는 흔들리는 전구들과 차가운 연기를 뿜는 재떨이들이 널려있는 텅 빈 홀은 “지옥”이며(Lee 136) “존재론적 박탈상태”의 형국을 보인다(Thurston 24). 메리앤은 최근 다비나에 강요당해 “형체 없는 흥분”으로 “여자아이 같은 달콤한 기대”를 가졌음을 후회하며(385), 다비나는 누군가에게 배반당했지만 이를 더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올리버(Oliver)가 있는 저택으로 향한다. 보웬은 이 바의 지저분하고 혼돈스런 분위기를 통해 전통과 정체성을 상실한 젊은 세대의 “정신적인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Lee 74),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도 경직된 옛 세상도 아직 시작단계인 그들의 욕망에 방향을 제공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Lassner 99).

다비나가 올리버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간 썩거미 경의 거대한 팔라디오 건축양식의 대저택 내부는 화려한 외관과 달리 섬뜩하고 꿈속같이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체크무늬 바닥과 벽기둥들로 된 “불법적인 침범의 기운”이 감도는 거대한 홀에는 냉기가 돌며(386),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소리를 죽이고 재빠르게 홀을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주인 없는 집에서 은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듯하다.

딱딱 소리 내는 장작불이 거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마비된 냉기**의 저류와 함께 이 방의 공기는 연기와 인간의 숨 막히는 **답답함**이 **빹빹**하게 가득했다. 이곳은 높고 허름하고 금박 입힌 흰색 8각형의 대기실로, 세 개 창문의 노출된 덧문은 **쇠창살**로 단단히 막아 놓았다. 상들리에 아래 놓인 상부가 너무 무거운 화려하게 장식된 테이블에는 술병들이 가득했고, **변색된** 거울의 판넬은 일행들을 계속해서 증식시켜 보여줬으며, 붉은색 화강암 원기둥 위에는 한쪽 가슴에 한 손을 얹고 균형을 잡은 프시케 상이 놓여 있었다. (386 필자 강조)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듯이, 썩거미 경의 대저택 역시 부도덕하고 파분한 삶을 영위하는 떠돌이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좁고 질식할 듯 답답하고 쇠창살에 갇혀있는 듯하다. 너저분한 술병들과, 이들을 증폭시켜 다수로 보여주는 변색된 거울 판넬과,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루는 듯 음울한 분위기에서 벌이는 이들의 파티는 마치 ‘생중사’의 모습을,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혼란과 부패현상을 암시한다. 원기둥 위에 장식품으로 놓여있는 프시케상은 올리버라는 큐피드를 만나게 될 ‘수줍은 여신’ 메리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큐피드와 프시케의 역설적인 반전”을 이룬다(Mitchell 51).

올리버와 다비나는 활기차고 경제력이 있던 젊은 시절 한 때 사랑했으며 결혼도 기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가난으로 꿈쩍없이 각자의 물웅덩이에 낙엽처럼 달라붙은 현재는 “애정의 찌꺼기”만 남아 서로 할 말이 거의 없어서 이날 밤처럼 단 둘이 보다는 여러 명이 만나는 것이 최선인 관계이다(387). 기존질서나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은 더 이상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자 “충족하게 살 권리를 부여받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다(407). 올리버는 다비나처럼 “사회의 적”으로, 전 재산을 팔아넘긴 부친으로부터 잘못 된 충고를 받아들여 “현 사회구조 속에 자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Mitchell 50). 그는 “부자를 경멸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싫어했으며 중간계층의 잔인한 소멸을 위해 건배”한다(388). 스스로를 불신하며 누구에게도 형제애를 갖지 않는 그는 궁지에 몰아넣는 전통적 구질서나 여지를 내주지 않는 새로운 현대적 질서 체계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두 세계 사이’의

존재이다. 올리버의 세련되지 못한 뒤틀리고 못된 태도로 인해 친척들은 그와 관계를 꺼려한다. 그의 숙부는 한두 번 지인의 시골저택 서재목록 정리를 추천해주었을 따름이다. 사회변화의 혼란에 적응하기를 거부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몰락한 지배계층의 잔재인 올리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이며 스스로에게 ‘골칫거리’이다. 썩거미 경은 올리버의 숙부에게 설득당해 그를 며칠간 시골 저택에 머물며 자신의 훌륭한지만 케케묵은 곰팡내가 나는 서재에 있는 장서들을 조사 정리하도록 고용한다. 하지만 썩거미 경 역시 그의 일처리가 “짜증스럽고 허식적이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다. 사실 키가 크고 잘 생겼지만, “기백이 꺾인 바이킹”인 올리버에 대해 화자는 “공연히 특권층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어서, 그는 다비나처럼 완전히 부도덕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방중한 귀족계급의 잔존물로 조롱한다(389).

반면, 아름다운 메리앤이 수줍어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은, “말을 더듬는 장애와 불확실한 건강과 흥분하는 감수성”을 지닌 올리버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천사나 여신”처럼 그의 격렬한 욕망을 자극한다(389). 메리앤은 모든 것이 혼란 상태인 귀족의 대저택에서 자신의 존재가 마치 “일종의 긴급 상황”을 발생시킨 ‘난민’처럼 느낀다. 그녀의 불안한 심리에 결코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올리버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녀에게 키스하며,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눈물로 유혹한다. 그녀의 거절을 연극으로 몰아붙일 때는 완전히 파렴치한의 행태를 보인다. 올리버가 메리앤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행위는 프로세로가 서로 대가를 치르며 사랑을 사고파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올리버는 살인자 프로세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다.

특별한 목적도 돈도 힘도 없는 이들 파티 참석자들은 자정이 지나며 환상에서 깨어난다. 지쳐 지나치게 날카로워진 감각들 위로 “느릿한 냉기”가 “독기”처럼 퍼짐을 느낄 때(398), 그날 밤 자신을 배신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는 다비나처럼 각자 내면을 드러내게 된다. 사실 이들은 치과의사 퍼던(Purdon)의 말처럼 초대받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침입한 존재들이다. 긍정적 반항정신이나 진취적 도전정신이 없이 단지 우

울한 진밀감으로 결탁하여 허세부리는 한 무리의 악당들과 다름없다. 냉기가 도는 무덤 같은 분위기의 대저택과 이곳에 진을 치고 덩굴며 쓰레기를 남기는 보헤미안 같은 이들 무리가 드러내는 신랄하고 냉소적인 분위기는 당대 전반적으로 암울한 도덕적 부패와 정신적이며 경제적인 빈곤현상을 음산하게 보여준다(Lee 135).

이 단편에는 제법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상당히 나이가 든 미리엠(Miriam)은 멀지 않은 곳에서 허름한 다과점을 운영하며 100파운드를 투자할 동업자를 찾고 있다(388). 자신의 혈통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의 인식론적 태도를 견지하며, 특히 현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녀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항상 뭔가에 법석을 떠는 신문이 주장하는 요점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단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아무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늘지고 아주 마음씨가 고운 여자”일 따름이다(388).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인 폴(Paul)은 백러시아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재력이 여성과 다소 따분하게 살고 있다. 그 역시 진보를 믿지 않는 인물로서 “세상의 종말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는(402), 앞으로의 희망이나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 회의주의적 인물이다. 그는 다비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라고” 충고하는데(402), 궁핍함에 시달리는 다비나가 기다려야 할 ‘무슨 일’이란 아마도 숙모의 죽음일 것이다. 이날 밤 썩거미 경 저택에 모인 젊은이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하며 방황하는 인물들이다. 메리앤을 차에서부터 집안으로 안내했던 별로 말이 없는 퍼던은 5천 파운드짜리 아일랜드 복권(Irish Sweep)에 당첨되어 돈을 모두 쓸 때까지 진료소 문을 닫고 있는 중이었다. 성격상 어떤 것도 애석해하지 않는 그는 이날 밤 술값을 모두 지불하고 다음 날이면 일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조락을 맞이했지만 자기들은 적어도 정직하며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합리화하는 다비나의 유일한 교제그룹인 이 무질서한 세계의 인물들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상을 꾸려나갈 것이다. 다비나는 그들의 일상을 상상하는데, 올리버는 용감하고 동시에 비겁하며 ‘의기소침한 바이킹’의 태도로(389), 폴은 차분하고 환상이 깨진 미소를 띤 모습으로 그려진다. 미리엠은 하이힐을 신고 바퀴벌레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퍼던은 한숨을 쉬며 병

원 문을 다시 연 모습으로 그려진다. 올리버는 본의 아니게 눈물로 메리앤을 속였음을 자인하고 건전하고 열정적인 핵심을 갖고 스스로를 다르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결코 썩거리 경의 도서목록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게으르고 감상적인 귀족의 일원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갈 것이다. 아마도 ‘환상’ 속에서가 아니고는 이들에게 “이 지옥으로부터 도피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들은 프로세로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다(Austin 81). 이와 같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보웬의 스케치 풍의 묘사는 버지니아 울프의 인상주의적 관찰과는 또 다르게 시공간적 분위기 묘사와 더불어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형상화하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위대한 소설가들은 ... 자신의 민족성, 계급, 성을 떠나서 글을 쓴다”는 예술가의 시각을 견지하는 보웬이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적 삶의 진실은 마냥 절망적이지만은 않다(Pictures 185). 이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혼란 속에도 올리버의 시중을 드는 저택 관리인 베닝턴 부인(Mrs Bennington)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구석에 있는 긴 안락의자에 누워 발을 벌린 채 코를 골고 있다. 갈라지고 굳은살이 박인 양손을 무릎사이에 놓고 잠들었던 큰 몸집의 나이든 여인은 이튿날 아침 9시에 일어나 일상을 시작한다. 희뿌연 햇살이 썩거리 경의 집 정면에 밀려드는 가운데 모든 방들의 덧문을 열고, 마룻바닥에 밟아 뭉개 담배꽂초를 줍고 큰 홀 소파의 시트를 정리하고 메리앤의 손수건과 줄무늬 진 울 스카프를 집어 든다. 유리창을 열어젖히고, 대기에 납처럼 매달린 퀴퀴한 차가운 공기를 내보내고, 빗자루로 깨진 유리를 쓸어 담고, 술 병들을 치우는 베닝턴 부인은 『등대로』 (To The Lighthouse)의 「시간은 흐른다」 (“Time Passes”)에서 10년간 비워둔 별장을 청소하는 맥넵 부인(Mrs. McNab)을 상기시킨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무의하게 활력을 낭비하지 않은 베닝턴 부인은 진정한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황량하고 지저분한 대저택은 그녀에 의해 질서가 회복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웬은 “암묵적 의미에서 비정치적이라 해도,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예리하게 이해하며, 계급과 사회풍토에 대한 날카로운 안목이 있었으며”(Glendinning 115),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형태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메리앤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행하며 자력으로 경제력을 확보하는 하층 계급의 베닝턴 부인과 달리 혼란스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전날 밤 올리버와의 키스로 혼란에 빠진 메리앤은 “마치 방금 여행에서 돌아와 아직 쉴 곳을 찾지 못한 것처럼”(404), 그녀답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집에서 방문을 닫은 후에야 부인에게 키스를 할 정도로 체면을 중요시하는 매튜는 아내의 기분이나 깊은 속내에는 관심이 없는 여전히 지루하고 단조로운 인물로서, 결코 아내의 속마음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남편과의 삶에서 활력을 찾지 못하는 메리앤의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이며, 이런 마음이 반영되는 그녀의 세상은 지루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트워드 코트 주머니에서 올리버의 눈물이 떨어졌던 양손을 움켜쥔다 폼다 하며, 흔들렸던 내면을 드러낼 수 없는 메리앤의 마음은 물을 갈아주지 않아 녹색을 띠며 살짝 악취를 풍기는 거실의 국화와 같다고 할 것이다. 어린 시절 모친이 말한 전형적 숙녀에 걸맞게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메리앤은 “분명치 않고 순진한 천사 같은 부인”으로 살갑지만 지루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며, 완전히 충실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상자”처럼 예전과 같은 삶을 지속해갈 것이다(Lee 148).

반면 프로세로는, 끝내 다비나의 눈에는 결코 허풍떨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상속을 박탈당한 자」에서 기존 가치와 기준에 맞춰 전개되는 화자의 서사와 동떨어진 자신만의 분열된 파편적 자아에 관한 복잡한 서사를 통해 독자에게 섬뜩한 공포와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충격을 가한다. 밤 10시 네 개의 촛불을 켜고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는 프로세로의 방은 마치 세놓은 곳처럼 가구가 없으며, 운전기사 제복만 문 안쪽에 걸려있다. 프로세로는 뻑뻑하게 쓴 종이들이 널려있는 책상에 앉아 강박충동에서 빠른 속도로, “생각”이 아니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무언가”가 “폭군 같은 펜” 끝을 통해 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다(392). “단어들은 서로를 너무도 잘 알며 치명적으로 공모하여 그들의 자리에서 솟아올랐다”는 표현에서 보여주듯이(392), “마음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바로 그 욕망에 노예처럼 묶인” 프로세로는 매일 밤 펜이 이끄는 대로 기계적이며 무의식적으로 편지를 써내려가는

“유령”과 같은 인물이다(Mitchell 50). 유도라 웰티가 지적하듯이 프로세로의 편지는 장면을 형상화시키는 상상력이 거의 환각적으로 드러나는 “비범한 역작의 일례”이다(Welty 22). 편지쓰기와 태우기를 매일 밤 거듭하는 프로세로는 반복충동에 갇혀있는 시시포스(Sisyphus)같은 존재로, 비록 일탈을 꿈꾸지만 건조한 일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다비나와 그녀의 교제그룹의 인물들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프로세로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돈이 많은 여인 애니타(Anita)의 취미와 변덕에 맞춰 살았던 과거 경험이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고용주 아치위스 부인이 말을 할 때 뒤꿈치를 딸각거리고 부인을 태우는 차를 “영구차”로 표현하며 마음대로 생활한다. 그는 본인이 받는 만큼만 일을 하는데도 부인을 만족시키며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자신을 돈으로 산 여인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던 과거와 달리, 그는 이제는 역할을 바꿔 다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키스를 사는 거래의 모든 재미를,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있다. 프로세로는 과거 연인과 있을 때는 여자가 예상하던 방식으로 행동하였지만, 이제는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행동하며,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고, 행동한 후에는 생각하지 않는다”(393). 여인이 주목해서 보라던 그림들도 없는 자신의 외딴 방에서 그녀가 그때 말했던 “제복을 입은 고용인”으로 살고 있는 프로세로는 ‘수도승’처럼 아늑하게 “지금의 나, 자유인”을 좋아한다(393). 사랑이 아닌 돈에 팔렸었던 것을 깨달은 프로세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한 후, 사람들이 흔히 그러리라고 추측하는 것과는 달리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방갈로가 아니라 그녀 무덤에 다녀오는 행동을 한다. 프로세로의 고백에 따르면 애니타는 영악하고 교활해서 엄격한 남편을 속이기 위해 편지도 금하며 한번 만난 곳은 절대 다시 가지 않고 물건을 사듯이 그의 절대적 사랑을 조종한 여인이다. “침대도 당신 돈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당시는 내가 했던 그런 식으로 당신을 사랑한 바보였다. 당신이 지불한 이상으로 주었으며, 당신은 내가 바보라는 것을 알았고, 바보에게 돈을 지불하였다. 애니타, 당신은 괜히 큰 사업가의 딸이 아니었고, 더 큰 부호의 아내가 아니었다”(394).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위하여 가명으로 빌린 방갈로에서 애니타가 그와의

관계를 돈으로 정리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미 크게 상처받아 서로에게 ‘독’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프로세로가 여자의 연락을 받고 방갈로로 가는 날은 마치 현실이 아닌 사진처럼 온통 어두운 회색으로 바람을 곁들인 비가 내린다. 그는 ‘납’이나 ‘돌’같은 느낌이 들며 “두꺼비 구덩이” 같은 방갈로에 혐오감을 느낀다(394). 이와 같은 치밀한 감정 묘사는 보웬의 특징이다. 소설쓰기에 있어 사건과 장소의 관계에 관한한, 보웬은 “현장(locale)을 떠나서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고” 또한 “현장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어느 정도는 사건 자체를 빚어낸다”는 입장이다 (“Notes” 253). 여기서 바람에 열린 창문으로 날리는 핑크빛 잠박이 커튼을 들이고 창문을 닫는 애니타의 팔을 보며 그녀도 프로세로 자신을 보았음을 인지하며, 그가 ‘출구가 없음’을 깨닫는 과정은 섬세하다. 완전 밀폐되어 바람이 없는 방갈로에서 격렬한 사랑 후에 지친 프로세로는 이제 비도 바람도 멎은 더운 7월의 일몰에 창문을 열고 벽들에서 스며나오는 귀퉁한 냄새와 어두워지며 창문에 부딪치는 나방들을 본다. 프로세로는 하찮은 나방들처럼 돈도 없는 주제에 수입의 범위에 넘치는 취미를 갖기 시작한 자동차 판매원인 자신의 정체성을, 그녀가 대부분 잊었다고 말한 남자, 모든 사람이 잊은 그런 얼굴을 가진, 전시에만 쓸모가 있었을 전쟁 신사로서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게 된다. 지금은 하찮은 존재지만 전시에는 “사태의 추이를 알 수 있었던”(395), 전쟁이 남겨놓은 장애 속에 비틀거리는 남성인물 ‘상이군인’에 본인의 모습을 투사하는 프로세로를 통해 상실감과 혼란스러움에 대한 전쟁의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조던(Heather Jordan)의 지적은 상당히 공감을 갖게 한다(26). 프로세로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편한 자세로 누워 자기 말만 반복하는 여인의 모습에, 즉 돈으로 자신의 변덕스런 감정을 강요하는 애니타의 태도에, 프로세로는 순간 베개를 집어서 그녀를 질식시킨다. “나는 베개에 있는 연무와 똑같은 붉은색 안개를 당신 얼굴에서 보았다”(395)는 진술에 이어 그녀를 질식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프로세로가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된 비현실적인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하였음을 암시한다. 돈으로 자신의 변덕스런 감정을 강요하며 그를 감정이 없는 무생물처럼 취급하는 애니타를 베개로 질식시키는 순간적인 행동은 이어지는 고의적인 살인과 스스로의 정체성

박탈로 이어진다. 후속으로 일어나는 이 끔찍한 행위는 전시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 자행되는 괴물 같은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섬뜩한 인식을 제공한다.

아무도 자신과 애니타와의 관계를 모른다고 확신하는 프로세로는 그녀의 지갑과 진주와 반지들을 챙기고, 자신이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좋은 표정을 거울에 지어본 후 방갈로를 떠난다. 방갈로에 지문이 남았겠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곳을 나오며 아직 자신처럼 느끼지도 못할 만큼 사실 현재 프로세로는 제 정신이 아닌 상황이다. 1939년 전 10년간에는 시대 분위기상 교수형당하는 살인범에 대한 선정적이고 섬뜩한 기사들이 신문에 머리기사로 실렸었다는 월슨의 지적처럼(10), 프랑스로 출장을 간 프로세로는 그곳 신문에 실린 애니타의 얼굴을 본다. 프랑스 신문들은 그녀가 젊고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남자 문제에 얽힌 방갈로 범죄로 본다. 하지만 부인을 죽인 범인을 찾아 교수형을 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삶에 오명을 남기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은 이 둘의 흔적을 지워버린다. 프로세로는 자신의 존재를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마도 나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표현함으로써(396), 보웬은 현존하는 인간이 사회에서 느끼는 철저한 비실체성에 대한 아이러니를 포착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프로세로는 철저히 혼자 되었을 때, 그들이 전혀 범인으로 상상도 못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거대한 존재감을 깨닫게 된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프로세로는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 인식하지만, 과렴치하게도 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따라서 흑시나 탄로 날까 두려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빠져나갈 방법을 계획할 때 마르세이유에서 만난, 프로세로라는 이름의 원주인이자 술고래 운전기사는 그에게 행운의 탈출구를 제공한다. 앙티브(Antibes) 근처 한 빌라에서 해고당해 아주 궁색한 상태로, 그와 아주 잘 맞는 얼굴을 가진 프로세로는 200프랑에 그의 여권을, 50프랑에 신분증을 팔아넘긴다. “얼간이들은 매일같이 그곳에서 사라진다”는 구절처럼 죽음을 당한 프로세로는 살인자에게는 단지 명칭이 바보일 뿐이다(396). 제1차 세계대전 후 정신적, 도덕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으로 사랑뿐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도 거래될 정도

로 물질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과거 귀족 특권층의 정신적 유산은 단지 과거의 산물이며 잔재로 전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술고래 프로세로를 강물에 익사시킨 후, 죽은 프로세로의 숙소에 가서 그의 짐을 챙겨 나온 살인자는 자신의 신분을 프로세로와 바꿔치기 한다. 따라서 살해당한 프랑스인 프로세로는 프랑스 유람지에서 자살한 어리석은 영국인들 중 한명이 된다. 아마도 다비나가 본 적이 있는 사진은 자살한 영국인으로 프랑스와 영국신문에 실렸을 죽은 프로세로의 사진일 것이다. 살인자 프로세로는 당시 회사에 빚을 진 것도 없고, 주변에 가족도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의 장례식에 가서 애도하지도 않았다. 마르세이유에서 운전기사 프로세로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해 사라졌으며, 그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한 살인자 프로세로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곳에서 아치위스 부인의 운전기사로 삶을 살며 애니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매일 밤 쓰는 편지에 고백한다. 현재는 그녀를 잊고 자신만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과 달리, 프로세로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주시하고 통제하던 애니타가 이제는 죽어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덤에 누워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사랑하고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으니 돌아오라고 쓴다면 당신은 속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큰소리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그녀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다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계속 부정하는 단어로 이어지는 혼란한 문장들로 프로세로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복잡한 심리를 표출하고,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큰소리로 편지를 쓰며, 어떻게든 애니타가 듣게 하려는 바람을 심포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강하게 드러낸다.

“당신을 사랑하오, 애니타.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럴 생각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어. 나는 내 베개에서 당신의 눈을 보오. 나는 혼자 누울 수 없어. 나는 밤을 견딜 수 없어. 돌아와, 당신 어디에 있나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요. 돌아와, 돌아와요, 돌아와 ...”

'Anita, I love you Anita, Anita, where are you? I didn't mean that, that was not me, I didn't, I can't bear you away. I see your eyes on my pillow, I can't lie alone, I cannot get through the night, come back, where are you, I won't hurt you, come back, come back --' (397 original italics)

결국 프로세로는 비틀거리며 비난하는 글씨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러브레터를 구성하고 자신의 서사의 끝을 맺은 후, 마치 의식을 완성하듯이 뺨뺨이 쓴 종이들을 모아서 난로에 넣어 불태워버린다. “여인에 대한 집착의 뒷”에 걸린 프로세로는 매일 밤 같은 내러티브를 되풀이하며, 마치 방갈로 창문에 부딪치던 자멸적인 나방들처럼 “올가미에 걸린 탄원”을 나열한다(Lassner 100). 프로세로의 고백체의 편지는 앞서 보여준 중상층 인물들의 혼란스럽고 타락한 삶을 극대화하는 치환의 전략이다. 그가 매일 밤 썼다가 불태우는 편지에서 밝혀진 처벌받지 않은 범죄행위는 막연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어떤 일”(377)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갖고 정신적이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 타락한 욕망의 극단적 일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프로세로의 희망 없이 자기소모적인 욕망은 썩거미 경의 대저택을 불법 침입한,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올리버의 손님들의 허무적이며 비관적인 지결임과 병치되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없는 부패한 사회의 부조리하고 자기 파괴적인 현상을 드러낸다. 매일 밤 썼다가 태우는 “프로세로의 범죄 서사의 창작은 그에게 구원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뒷으로 작용하여” 비록 살인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평생 올가미에 걸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할 것이다(Stewart 149). 따라서 「상속을 박탈당한 자」는 “전통과 공동체의 분명한 구조로부터 분리된 인간주체의 근본적인 트라우마적 자기폭로”가 되며, 보웬의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예술가적 면모를 보여준다(Thurston 26).

III. 끝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에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신의 현재의 삶

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만족스럽지 않게 보이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아 합리화시키는 인물들이다. 작품 제목에서도 암시하듯이, 권리는 부여받았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실현해야 할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거나 스스로 저버린 자들로 제대로 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줄 수도 누릴 수도 없다. 이들 중에는 너무도 제한적인 일상적 삶에서는 알지 못하던 감정을 뜻밖의 사건을 계기로 느끼게 되며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배신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또다시 살인을 행한 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일 밤 반복적으로 그 사건의 전말을 편지로 썼다가 태워버리는 정신병적 행동을 자행하는 인물도 있다. 그의 생존전략은 세상경험을 통해 특권층 여성들의 속성을 알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이용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자신의 자멸적 자존감을 지키려는 인물로 거듭난다. 반면, 여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은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에 있음을 탓하며 숙모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결심한다. 사건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위기는 환상이었으며, “순간적인 격렬한 현실의 열정은 영혼에서 튼 불꽃처럼 열길로 빛나가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그녀는 물려받게 될 돈을 이용해서 살기로 마음먹는다(407). 이와 같이 정당화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은 스스로 노력 없이 유산을 상속받음으로써 경제력을 소유하는 귀족이나 특권층 젊은 여성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병치되는 두 서사를 통해, 특권층에 기생하여 아마도 지루한 삶을 이어갈 그녀의 삶 또한 결국 인간성을 상실한 끔찍한 생존사의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녀는 키스를 이용해 자만심을 만족시켰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숙모에게 고인이 된 숙부와 똑같이 닮은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녀를 너무도 쉽게 이기고 그녀의 호감을 이끌어내며 스스로의 자만심을 만족시킬 것이다.

이들은 모두 20세기 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며 불안과 혼란 속에서 존재의 무의함에 체념한 채 살고 있는 낙오된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 보웬은 「상속을 박탈당한 자」에서 특권층에 속하는 상류층과 중산층, 그리고 세일즈맨을

하다가 이제는 쇠락한 귀족부인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중하층 인물 등 각계각층의 불안하고 좌절된 삶의 모습을 그려내며, 당대의 부도덕하고 불안정한 시대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보웬은 단편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혼란스런 서사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타락한 현재 삶의 양상들, 즉 부도덕성과 절망감과 비통함을 상호 병치시켜 묘사했다.

「상속을 박탈당한 자」는 이와 같은 주제의식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실험’인 단편소설의 특성을 구현하였다. 언뜻 이야기의 흐름과는 이질적인 고백의 서사를 꽤 길게 삽입함으로써 다성적 서사로서의 단편소설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상속을 박탈당한 자」에서 보웬은 인물의 내면심리를 반영하고 때로는 빚어내는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수사적 비유뿐 아니라, 특이한 ‘자석 같은’ 인물의 기이한 이야기를 끼워 넣는 서사전략을 통해, 자신이 주장해온 새로운 “시적 실재성”을 구현하며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심미적, 도덕적 진실”을 천착하였다(“Faber Book” 43).

인용문헌

- Austin, Allen E. *Elizabeth Bowen*. Revised edition, Twayne Publishers, 1989.
- Bowen, Elizabeth. "The Disinherited." *The Collected Stories of Elizabeth Bowen*, edited by Angus Wilson, Alfred A. Knopf, 1981, pp. 375-407.
- _____. "Miss Bowen on Miss Bowen." *New York Times Book Review*, 6 March 1949, p. 33.
- _____. "Notes on Writing a Novel." *Collected Impressions*, Alfred A. Knopf, 1950, pp. 249-63.
- _____. "The Faber Book of Modern Short Stories." *Collected Impressions*, Alfred A. Knopf, pp. 38-46.
- _____. *Pictures and Conversations*. Allen Lane, 1975.
- _____. "Stories by Elizabeth Bowen." *The Mulberry: Writings of Elizabeth Bowen*, edited by Hermione Lee, Harcourt, 1986, pp. 126-30.
- D'hoker, Elke. "The Poetics of House and Home in the Short Stories of Elizabeth Bowen." *Orbis Litterarum*, vol. 67, no. 4, 2012, pp. 267-89.
- Glendinning, Victoria. *Elizabeth Bowen*. Alfred A. Knopf, 1978.
- James, Haule. "She and the Moral Dilemma of Elizabeth Bowen." *Colby Library Quarterly*, vol. 22, no. 4, 1986, pp. 205-14.
- Jordan, Heather Bryant. *How Will the Heart Endure*. U of Michigan P, 1992.
- Lassner, Phyllis. *Elizabeth Bowen: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Twayne, 1991.
- Lee, Hermione. *Elizabeth Bowen: An Estimation*. Vision, 1981.
- Medoff, Jeslyn. "There is No Elsewhere: Elizabeth Bowen's Perception of War." *Modern Fiction Studies*, vol. 30, 1984, pp 73-81.
- Mitchell, Edward. "Themes in Elizabeth Bowen's Short Stories." *Critique*, vol. 8, no. 3, 1966, pp. 41-54.

- Stewart, Victoria. "Violence and Representation in Elizabeth Bowen's Interwar Short Stories." *English*, vol. 58, no. 221, 2009, pp. 139-59.
- Thurston, Luke. "Double-crossing: Elizabeth Bowen's ghostly short fiction." *Textual Practice*, vol. 27, no. 1, 2013, pp. 7-28.
- Welty, Eudora. "Seventy-nine Stories to Read Again." *New York Times Book Review*, 8 February 1981, p. 22.
- Wilson, Angus. "Introduction." *The Collected Stories of Elizabeth Bowen*, Alfred A. Knopf, 1981, pp. 7-11.

Abstract

The Moral Bankrupts in Elizabeth Bowen's "The Disinherited"

Myung Hee J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essay conducts a close reading of Elizabeth Bowen's short story, "The Disinherited" (1934). The story betrays the grotesque vision of the spiritual malaise, dislocation, moral corruption, and horrifying cruelty in the economically depressed and psychologically confusing 1930s' England. The dark vision is encapsulated in a juxtaposition of three different social classes: the parasitic lives ex-aristocrats led, a deviational late-night gathering a middle-class woman happened to join in, and the macabre tales a lower-class chauffeur enumerated in a gruesome, fragmentary and repetitious manner. Bowen depicts the harmful consequences of the disordered social structure and disoriented conventional values resulting from paralyzed passion and moral bankruptcy, together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changing seasons or morbidly uncanny dream-like atmosphere and sombre scenes in question. In particular, this essay elaborates on the significance of the chauffeur's confessional monologue in the story. For it is not a mere fantasy weakening the story's ingenuity and subtlety, but works for the 'single effect' central to the short story genre with its poetic and dramatic experiment.

Key Words: Elizabeth Bowen, “The Disinherited,” disorientation, dispossession, moral bankruptcy

논문접수일: 2020.09.15

심사완료일: 2020.10.20

게재확정일: 2020.10.26

이름: 진명희

소속: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교수

주소: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이메일: mhjin5488@hanmail.net